남산의 자연 생태 "아는 만큼 보여요!"

남산의 사계절 생태 정보 소식지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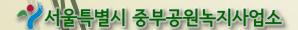
[전시장소] ** 무료 관람*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 저시기가]

2021.10.15.(금)~2021.12.31.(금)

※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10:00~17:00



"자연의 일상은 지켜주세요!"

2019년 6월 1호 꿩을 시작으로 어느덧 세 번의 여름이 지나가고 2021년 9월 현재 남산 생태 소식지 45호를 발행했습니다. 사계절 남산 곳곳을 관찰하면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쌍꼬리부전나비를 발견하고,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제비 가족을 만나고, 까다로운 식성의 사향제비나비 애벌레의 존재도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관심은 경이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기후변화, 환경의 날 제정, 탄소중립 선언…. 지구가 직면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짐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자연의 일상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는 삶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With 남산! 잠시 쉼표를 찍으며 남산의 자연 생태 보물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OR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2화 남산을 찾은 제비, '바쁘다 바빠, 제비의 육아일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귀소본능이 강한 여름 철새 제비는 지난여름을 보낸 옛집을 기막히게 다시 찾아가는 영리한 새입니다. 처마가 있는 집을 선호하는 제비가 도심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모처럼 남산을 찾은 제비 가족, 터를 잡고 해마다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1980년대 이후 도시의 거대화로 보기 힘들어진 생물이 많습니다. 대표 생물이 제비기 아닐까 합니다. 제비가 점차 도시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새에게 필요한 은신처와 먹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마 밑에 등지를 트는 제비의 특성상 아파트 증가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도 문제입니다. 집을 만들 때 물과 흙 풀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도심에서 흙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도시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물도 발견하기 어렵지만, 최근 공원에 만들어진 작은 연못, 실개천 등 친수 공간이 도시에 사는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까다로운 서식 조건에서 사는 제비가 남산에 있을까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6년~1995년까지 남산에서 발견됐으나 2005년~2009년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남산의 새 시민모니터링단'이 활동하면서 1~2마리씩 다시 만날 수 있었고 2021년 6월 처음으로 남산에서 어린 제비















남산 근처에서 제비집을 발견하신 분은

제비는 여름철새로 4월경 남산에 도착, 8월까지 살다 9월에 따뜻한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온 후 20여 마리의 제비가 한남 야외식물원에서 날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천적인 새매가 어린 제비를 잡으려 할 때 집단으로 새매를 쫓아내는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진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냐고요? 관심은 눈을 확대경으로 만듭니다. 보면 애정이 생기가 귀소본능이 있는 제비를 매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글 /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OR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6화 사향제비나비, 드디어 남산을 찾다'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향제비나비 수컷의 몸에서 '사향'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이 사향제비나비입니다. 예쁜 이름만큼 까다로운 사향제비나비 애벌레는 쥐방울덩굴(식물)만 먹는 편식쟁이 곤충입니다. 쥐방울덩굴이 남산에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자 사향제비나비도 날아듭니다.





OR 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8화 벌들의 전쟁, 꿀벌 vs 등검은 말벌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먹이부족으로 동물도 살기 힘들어 집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꿀벌은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지구의 파수꾼이자 용감한 지구 수비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버스: 순환버스 02,04(동대입구역,장충동)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대중교통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257-10(장충단공원 내)



